

Ⅲ. 결혼한 전무출신의 가정윤리(初)

성 도 학(수위단회사무처 연구원)

1. 서	50
2. 전무출신의 정의	51
3. 가정의 의미	54
4. 전무출신에게 가정을 갖게 하신 이유	58
5. 가정을 가짐(결혼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려움(문제)	62
1) 교단 분위기에서 오는 어려움(문제)	63
2) 제도상에서 오는 어려움	64
3) 사회 구조 변화에서 오는 어려움	66
4) 세속화에서 오는 문제점	69
6. 극복 방법	69
1) 분위기에서 오는 어려움 극복 방안	70
2) 제도에서 오는 어려움의 극복 방안	71
3) 세속화에서 오는 문제 극복 방안	73
7. 결혼한 전무출신의 역할	73
8. 결어	75

1. 서

모든 종교가 시대에 따라 교법을 내놓고 교법에 바탕한 제도를 통해 교조의 경륜을 실현시키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종교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있어서의 그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제도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하지 않아도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다.

대종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새로운 회상을 세우기로 하면 근본적으로 교리와 제도가 과거보다 우월해야 한다’(교단품42)고 하셨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종교의 출현 당위성을 인정 받기 때문이다.

원불교도 과거의 종교에 비해 교리와 제도의 우월성과 특징은 교법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무출신 제도도 그 중 하나라 할수 있다.

대종사는 ‘스승이 법을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그 공덕이 같다’(부촉품17)하셨다.

교조의 경륜을 널리 세상에 포양하는 전무출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이다. 때문에 전무출신을 양성하는 제도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 교단내에서 전무출신의 자격에 있어서 결혼한 사람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다 수용하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만약 이 제도를 대종사께서 재세시 직접 시행하지 않으시고 후래 제자의 몫으로 남겨 두셨다면 각각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동질성을 회복하는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단의 힘이 소비되었을 것이다.

과거 종교의 분파의 원인 상당 부분이 이 문제에 기인 했음을 상기해 볼 때 다시금 대종사의 대恩에 감사드린다.

기흔 교역자의 가정윤리 문제를 연구의 주제로 삼게 된 이유는 기흔 전무출신의 상이 절실히 필요 했기 때문이다.

결혼한 교역자는 정남.정녀와는 달리 공가와 사가를 오가는 이중 구조속에서 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계가 많을 수 밖에 없다.

특별한 신심과 서원이 없이 경계속에 묻히다 보면 본래 서원 모습을 잊어 버리고 승(출가)도 속(재가)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 현재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루 빨리 기혼 전무출신 상이 정립되지 않으면 기혼 전무출신의 존립의 당위성이 뿌리까지도 흔들릴 수 있으며, 대종사께서 성직자에게 결혼의 자유를 부여하신 본의에도 배은 수 있을 뿐 만아니라, 5만년 대운을 통해 이어질 결혼할 교역자에게도 역사적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함에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의미로 이를 주제로 했다.

결혼한 전무출신이 가정에서 어떠한 윤리체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전무출신의 가정윤리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제시에 앞서 전무출신의 본분이 무엇이며, 전무출신이 갖는 가정의 의미, 그리고 왜 대종사께서는 전무출신도 가정을 갖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가정을 갖음으로서 오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며, 끝으로 과연 결혼한 전무출신이 교단에 기여할 역할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기혼 전무출신의 상의 정립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리라 본다.

이런 정신이 바탕되어야만 전무출신이 갖어야 할 가정윤리가 무엇인가 하는 해답이 나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정윤리 방법은 다음 기회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고 여기서는 개괄적인 내용만 살펴 보았다.

이런 형태의 연구는 좋은 글이 목적이 아니다.

올바른 상을 정립하여 그 상에 맞게 살아가면서, 또 그러한 상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전무출신의 정의

이를 먼저 언급한 것은 전무출신의 관이 확실히 서야만이 내 자신이 전무출신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만이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다르고 변화한다 하더라도 전무출신에 맞는 정신 자세와 생활 철학과 목표 의식과 사명감이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무출신의 정신은 결혼을 했다 해서 달라지는 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무출신의 제도는 원기 9년 익산 충부 건설 당시 선진들이 공동 생활을 시작

한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종사께서 생각하시고 바라시던 전무출신 상은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공중에 바친자이며, 전무출신의 본분은 개인의 명예와 권리나 이욕은 불고하고 오직 공사에만 전력하는 것이다.

대산 상사는 전무출신으로써 마땅히 갖어야 할 정신 및 생활 신조의 표준을 12가지 도로써 밝혀 주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시방삼계 육도 사생의 전체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안다.
- ② 자신과 교단과 세계를 위하여 남김 없이 심신을 다 바친다.
- ③ 삼학 팔조와 사은 사요를 몸소 앞장서 실천하고 천하 만국 만민에게 전하여 줄 천직이 부여 되었음을 명심한다.
- ④ 몸은 천하의 뒤에 서서 일하고 마음은 천하의 앞에 서서 일한다.
- ⑤ 전무출신은 누가 맡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천직임을 명심하여 대도의 주인이요, 하늘의 마음을 대행하는 천지의 주인임을 안다.
- ⑥ 후일에 보답을 바라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 ⑦ 일생동안 재색 명리의 락을 이 공부 이 사업으로 바꾼다.
- ⑧ 정신, 육신, 물질을 다 교단에 바친다.
- ⑨ 일반 교도의 모범이 되기에 힘쓴다.
- ⑩ 천하의 모든 일을 아무런 사심 잡념 없이 오직 진정으로 한다.
- ⑪ 법을 위하여는 신명을 바치고 공을 위해서는 사를 버린다.
- ⑫ 각자의 맡은바 직장에서 그 일 그일에 힘과 정성을 다한다.

고 밝혀 주셨다.

또 출가식에 앞서 마지막으로 맹세하고 다짐하는 전무출신의 서원서에 보면 전무출신의 각자는 사중 보은의 의혜를 깊이 느끼 옵고 본교의 공부와 사업에 전무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항을 진실 서원한다.

- ① 마음은 사문에 드리고 몸은 공중에 바쳐서 세세生生 이 법륜을 떠나지 않기로 한다.

② 본교의 명령에는 수화라도 불피하고 복종하기로 한다.

③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일체 포기하고 오직 본원을 위하여 정진하기로 한다.

④ 전무출신에 관한 규정을 일일 준수하기로 함.

상기와 같이 서원하오니 복유 법신불께옵서 통촉하시옵고 제불 제현께옵서 증명하시와 본인의 이 서원 실행에 위력과 교훈을 주시오며 혹 이 서원에 위반되는 행동이 있을때에는 어떠한 징벌이라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은 오직 참회와 실천이 있을 뿐이요 다른 여한이 없겠음을 이에 맹서합니다.

위의 전무출신에 대한 대종사의 경륜, 대산상사의 도, 전무출신 서원서에도 나타나 듯이 과연 이런 삶의 자세가 보통 서원과 사명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법위 등급 출가위에 보면 출가위는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령을 위하여 천사만고와 함지 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라 하셨다.

이에 비춰 보면 대종사께서는 전무출신의 표준을 이미 출가위에 두셨다고 할 수 있다. 출가위에 표준하지 않고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무출신의 목표는 이미 자의와 상관없이 출가위며 서원서에 서명하는 전무출신은 출가위를 목표로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리해 보면 전무출신이란 출가 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헌신 봉공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위해서 헌신 봉공하는 곳이 아니라, 일체 생령을 위해서 보은하는 마음으로 불공하는 마음으로 무아봉공하는 사람이 전무출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은 결혼을 했다 해서 달라질 수가 없으며, 깊이 생각하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대종사께서 “나의 교법 가운데 일원을 종지로 한 교리의 대 강령인 삼학 팔조와 사운 사요 등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다시 변경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세목이나 제도는 그 시대와 그 국가에 적당하도록 혹 변경 할수도 있다”고

하셨다. (부속품 16)

종교 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이나 조직에 있어서도 변해서는 안될 것이 있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또 안될 것이 있다.

변해서는 안될 것이 변화가 되며는 그 조직은 중심을 잊고 존재의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며

능히 시대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 대처 해나가야 할 제도나 세목들이 고착되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현실성의 결여로 도태 될 수 밖에 없다.

전무출신의 정신은 변해서는 안될 고정된 실체는 아니다.

언제나 가변성을 인정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5만년 대운에서의 원기 80여년의 원불교는 아직도 제도를 정비하고 관(觀)을 세워나가는 초창 시기 임을 직시 할 때 전무출신의 정신은 당분간은 어떠한 조건으로도 변해서는 안될 정신이다.

3. 가정의 의미

일반적인 가정의 의미는 인간이 태어나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곳인 동시에 인간다움을 배우고 가르치는 훈련 도량이요, 인간의 꿈과 이상을 잉태하는 기본적인 사회집단이다.

가정은 가족들이 서로를 부처님으로 모시고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는 사랑의 보금자리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언제나 정성을 다하여 은혜와 진실을 함께 나누는 곳이며 가장 원초적인 생활 공동체이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행복하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행하면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가정 생활이 건전하여야 만이 건전한 사회 발전을 기대 할 수가 있다. 때문에 인간에 있어서 가정은 그 어떤 집단보다 중요한 사회 집단이다.

대종사는 '한가정은 한 나라를 축소하여 놓은 것이요. 한 나라는 여러 가정을 모아 놓은 것이니 한 가정은 한 나라인 동시에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된다' 하여 대종사님이 보신 가정은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로서 즉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로 보았다.

정산 종사는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부부로 비롯하여 부모, 자녀와 형제 친척의 관계가 자연히 있게 되는바 그 모든 관계가 각각 그에 당한 도를 잘 행하여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안락한 가정. 진화하는 가정이 될것이라'하여 가정은 인간 생활의 비롯이며 관계와 조화 속에서 가정이 영위되는데 행복하고, 안락하며 진화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서는 구성원 각자가 그에 당한 도를 잘 행할 때 비로소 이루어 진다 하였다.

대산 상사는 원기 79년 가정의 해에 즈음하여 가정에 대한 법문을 말씀하셨기를 '가정은 낙원이요, 불국 정토라 부모님은 자비불이시며 자녀는 불보살로 진리와 부모에게 의탁시켰다.

서로 진리와 도와 법과 철학으로 스승 삼고 상봉하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보은의 일꾼이 되자' 하였다.

이는 가정에 대한 정의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설정, 가족 구성원이 지켜야 할 도의 제시, 실천 방법까지 명확하게 밝혀 주었으며 가정의 존재 당위성을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보은의 일꾼이 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주었다.

원불교에서 보는 가정의 개념을 요약하면 생활 공동체로서의 가정, 사회 구성체로서의 가정, 시방일가(十方一家)로서의 가정의 의미로 집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엄부와 자모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 즉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혈연 중심의 가정이며, 둘째는 여러 가정이 모여서 성립되어지는 한 사회 구성체를 의미하는 사회 집단적 의미의 가정이며, 셋째는 광의의 차원의 시방일가 사생일신(十方一家 四生一身)이라고 하는 시공(時空)을 초월한 우주적 가정의 의미를 포함한다.

또한 대종사는 평소 공가(公家)와 사가(私家)라는 표현을 대단히 많이 사용하였음을 볼 수가 있는데 사가의 의미는 개인 개인의 가정이요, 공가는 공동 생활 집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사가라 함은 출가자의 부모와 처자가 있는 가정, 세속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정을 뜻하고, 공가라 함은 성불제중의 뜻을 세우고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출가 생활하는 교단의 법연들이 모여 생활하는 곳을 의미한다.

사가는 부모, 자녀 등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공동체라 한다면 공가는 법연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공동체이다.

여기에서 일반 사람들이 갖는 가정관과 출가자들이 갖는 가정관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물론 출가자에 있어서 사가(혈연)와 공가(법연)는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다같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마는 현실적으로 사가에 대한 절박함과 책임감이 결혼한 전무출신들이 더 절실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사가를 다루는 가정관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주로 기혼 전무출신의 입장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전무출신 제도 특징 중 하나는 과거와는 달리 출가자(전무출신)도 가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종사는 초기 교단 창립 당시부터 전무출신에 있어서 결혼 문제는 본인의 원에 맡겨서 선택하게끔 하셨다.

이는 각자(覺者)의 대오분상에서 기인한 미래를 전망한 시대관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전무출신이 가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가정의 형태는 일반 가정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전무출신은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공도에 바친자이며 개인의 모든 것을 불고하고 공사에만 전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본인의 원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끔 하셨어도 본분은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공사에 전념하는 것이 전무출신이다.

대종사께서는 전무출신이 결혼을 함으로써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무출신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주객이 전도된 생활에 빠질까봐 이를 크게 경계 하시면서 공가와 사가의 구분을 철저히 하셨으며 또 그에 따른 역할도 명확하게 구분 하셨는데 이는 원기 20년에 발간된 예전에 나타난 결혼에 관한 내용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당시에는 결혼시 결혼 희망서를 작성하여 영구 준수케 하였는데 예문을 보면 “본인은 공사를 위하여 가사를 전히 불고할 지라도 귀하가 부모 봉양과 자녀 교양을 전담하는데에 여한이 없기를 히망함(남녀공용)”

“불법 연구회의 남녀권리 동일 원칙 이행하기를 히망함(남녀공용)”이라하여 결혼전부터 결혼 후 출가자와 배우자의 책임과 역할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이행하여 결혼을 했다하여 전무출신의 본분이 달라지지 않음을 알게하셨다.

대종경 실시품 37장에도 잘 나타나 있다. 대종사께서 재세시 대중에게 통솔하심에 엄하게 경계하시고 염려하신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공물(公物)을 사유로 내는 것이요.

둘은 출가한 사람으로서 사가에 돌아가 이유 없이 오래 머무르거나 또는 사사(私事)를 경영하는 것이요.

셋은 자기의 안일을 도모하여 공중사에 협력하지 않은 것이요.

넷은 삼학 병진의 대도를 낚지 아니하고 벽되어 정정(定靜)만 익히어 신통을 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대종사께서 공사의 구분을 확실히 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것들은 법문으로만 경계 하심이 아니라 대종사 재세 당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여 주신 제자들에 대한 통솔과 지도 방법이었다.

이러한 전무출신의 정신이 현실적으로 실현 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초창기에는 대종사의 탁월하신 운심처사와 선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철저하게 지켜졌으며 그 정신이 바탕이 되어 오늘날의 원불교가 이 만큼 성장하게 된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전무출신의 정신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처음 출가할 때 정신과 육신 양 방면으로 오로지 이 교단에 바치겠다고 서약했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현재 같이 전무출신의 가정에 대한 교단의 제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출가 당시 서약과는 달리 가정에 얹매이지 않을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출가자가 가정을 가짐으로서 가정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대종사께서는 충분히 알셨을 텐데 출가자에게 결혼의 자유를 부여 하시고 그러시면서 한편으로는 전무출신의 정신을 강조하신 데에는 그에대한 충분한 경륜이 있으리라 본다.

전무출신에 있어서 가정의 의미는 바로 대종사께서 전무출신에게 가정을 갖게 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의미는 자연 들어나리라 본다.

4. 전무출신에게 가정을 갖게 하신 이유

대종사 제세 당시의 종교인(승려)에 대한 결혼 문제는 당시의 세상 인심과 또 종교가의 분위기에서 보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수도인이 결혼을하여 가정을 갖는다는 것은 당시의 의식으로는 혁명적인 사건이며 일대 사고 전환이다.

이러한 정서속에서 결혼을 하고 성직을 수행한다는 것도 그 만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사께서는 왜 출가자를 결혼을 하게하여 가정을 갖게 하셨는가.

결혼의 자유를 부여하신 대종사의 본의를 잘 알 때 비로서 결혼한 교역자의 역할 및 결혼의 당위성을 인정받고 전무출신의 가정의 의미가 드러나리라 본다.

- 첫째: 개교의 정신이 일체 생령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원불교의 개교이념이며 동기 이기도 한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법 또한 일체 생령을 제도할 수 있는 교법이어야 하고 교법에 바탕해서 나온 제도(制度) 또한 일체 생령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이런 큰 맥락에서 보면 일체 생령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1차적 책임을 부여 받은 전무출신, 그 전무출신제도 또한 개교의 정신에 부합되어야 한다.

대종사의 교법은 과거와는 달리 어느 특정 부류나 계층에 맞춰서 내놓으신 교법이 아니라 출가, 재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 법대로만 공부한다면 능히 성불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으며 제중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정신에 바탕해서 전무출신의 제도도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제도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이라 생각한다.

· 둘째: 교법의 정신이 바로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이기 때문이다.

대종사께서 생각하신 앞으로의 종교의 모습은 과거와는 달리 시대에 맞는 종교, 생활에 부합되는 종교, 대중을 유익주는 종교다.

이는 대종사께서 혁신하고자 했던 불교의 제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불교의 폐단이 출세간 생활을 본위로 교리와 제도가 조직되어서 세간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하여 앞으로의 종교는 교당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세우게 하고, 출가자의 의식 생활도 자력 위주로 하게 하였으며, 결혼에 있어서도 자유로 선택하게 하였다.

돌아오는 세계의 종교인 상도 시대에 맞는 종교인, 생활에 맞는 종교인, 대중에 맞는 종교인이다.

대종사께서 초기 교서인 수양연구요론 서문에 밝혔듯이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혜복을 구함에 있다”고 하셨다. 종교의 목적이 신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라면 굳이 결혼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셨다.

종교의 교리로 생활을 빛내고 생활속에서 진리를 연구하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활을 거슬려서 도를 닦기보다는 평범한 삶 가운데 도를 구하자는 것이 원불교의 취지이므로 가정을 갖게 하셨다.

교법이 교법으로만 남아 있으면 이는 공각에 불과하다. 교법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고 실천될 때 비로소 그 교법은 생명력을 가질수 있다.

대종사의 교법 정신은 생활속에서 교법이 나투어지는 것이다.

· 세째 : 돌아오는 시대를 진단하시고 새로운 기운을 전망하셨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성직자도 대부분 결혼을 하여 성직을 수행하는 시대가 되리라는 것을 대종사는 예시하였다.

대종사께서는 정남정녀 제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서원과 발원이 있어야만이 정남정녀로 살아갈 수 있다 하였다.

특별한 서원과 발원이란 재, 색, 명리를 놓고 세상과 교단을 위하여 고결하고 오롯하게 남을 위해 살아감을 의미한다.

정남정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서원과 발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 말씀

을 하실 당시의 정서는 수도인은 당연히 독신 생활이 위주였기 때문에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특별한 서원과 발원이 필요한 사람은 결혼한 출가자였을 것이다.

이에 비춰 볼 때 대종사께서 정남, 정녀에게 특별한 서원과 정신을 강조하신 본의를 시대상황으로만 한정지울 때는 돌아오는 세상을 예시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돌아오는 시대에는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도인이 모습도 가정을 갖고 성직을 수행하는 형태가 대부분이 될 것이다.

이런 기운에 따라 독신 생활만 주장하던 기존의 종교의 성직자 제도도 필연적으로 변화가 따르게 될 것이다.

교단의 최초의 정녀이신 공타원 종사의 문집에 보면

요즘 같은 개방시대에 남녀가 문을 닫고 독신만 고집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라는 후배의 질문에 “지금은 결혼을 안하지만 나중에는 구태여 결혼 안할 것은 없지. 정남정녀는 극히 소수의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만 해야지. 급료도 제대로 주고 남녀가 결혼생활하면서 전무출신 해야 원만구족하고 완전 무결한 회상일게 아닌가”라고 하셨다.

미륵회상이 건설된 세상에는 불법이 천하에 편민하여 승속의 차별이 없어지고 공부와 생활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한다 하셨다.

· 네째 : 가정을 갖고 서도 성불제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도를 중득하기 위해서는 집을 떠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집을 떠나 도를 구하는 것이 구도자의 상식이었지만 대종사께서는 어려서부터 구도고행과 성도할 때까지 집을 떠나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도(濟度)의 첫 사업도 가정과 고향을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정을 부각한 중대한 뜻이라고 의미지울수 있겠다.

특히 대종사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신 성자이시고 이 회상이 처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크리라 본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대종사의 교법데로 공부한다면 과거와는 달리 출가자가 가정을 갖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불제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표1

대각여래위(4명)			출가위(49명)			대봉도(65명)	
정남.정녀	기혼자	재가	정남.정녀	기혼자	재가	정남정녀	기혼자
	4		20	19	10	38	27

· 다섯째: 전무출신의 가정을 통해 모범적인 가정의 표준을 보여주기 위하여

물질 중심의 쾌락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타락한 성윤리 의식은 가정의 본래 의미와 목적을 퇴색시켰고 더불어 가정이 안정된 삶의 터전과 든든한 등우리가 되어 주지 못하여 가정의 구성원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며 특히 청소년들이 따뜻한 부모의 사랑의 결함으로 질척하고 어두운 뒷골목에서 공허함을 말초적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방황하고 있음을 볼 때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일체 생령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신 크신 경륜을 가진 대종사로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집단인 가정이 병이 들고서는 당신의 포부와 경륜이 이 사회 실현 시킬수 없다는 것은 아셨다.

· 여섯째 : 불연(佛緣)의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아무리 숭고한 뜻을 가지고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더라도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그 경륜을 펼수가 없는 것이다.

대종사께서는 이 회상을 폐시기 위한 인연을 맺기 위하여 많은 生을 오가면서 때로는 이 천지를 안주처로 삼기로 하시고, 일하는 사업장을 삼기로 하시고, 유희장으로 삼아 놀고 가기도 하셨다고 했다.

성자께서 찾아주시는 복은 더할 나위가 없지마는 성자 가까이 또 법의 테두리 속에 인연 된다는 것 또한 복중 복이라 할 수 있다.

대종사께서 법의 인연지로 전무출신의 가정을 마련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 일곱째 : 전무출신 배출의 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면 대종사께서 성직자에게 결혼을 허용한 동기를 보면 교법이 국한이 없이 짜여졌고 그 교법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사업이 원대 했으며 또한 성직자의 결혼을 제한하므로써 소수만이 할수 있었던 일을 누구나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의 문을 넓힌 것과 종교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실행활에 도움이 되는 종교를 만들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5. 가정을 가짐(결혼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려움(문제)

일반적으로 결혼은 양성 모두에게 실리적 혜택을 가져다 준다.

남성은 대를 이어갈 자손을 얻게 되고 자신의 부모를 돌보고 자신의 사회적 활동을 내조할 서비스 제공자를 얻게 된다.

결혼이 여성에게는 생존과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와 자아 정체감을 가져다 준다.

원불교 교역자의 결혼은 일반적인 결혼과는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명확한 남성은 생계담당, 여성은 가사 노동 담당이라는 기본 구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오히려 가족의 생계 전담자라는 것은 결혼전부터 이미 전제되어 있다.

전무출신이란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공헌하는 출가 교도이며 그러한 전무출신은 사가에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가정사는 배우자나 기타 가족이 담당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전무출신이 가져야 될 공사(公私)간의 가치관도 사가의 중요성은 인정 하지만 사가에 앞서 공가를 지향하는 공가 지향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혈연과 법연을 다 소중하게 여기나 법연 우선 주의이며, 사업에 있어서도 자리 이타로 보은의 도를 행하지 마는 자타가 상충되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자해타리로써 복락을 삼고 있다.

그러면서도 궁극에 가서는 지공무사요, 무아봉공이다.

이러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근원은 진리에 표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세속적 가치관으로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교무 가족들도 이 사회안에서 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결혼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전무출신이 가정을 가지므로서 생기는 어려움은 초창 선진님들로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는 문제이고 또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점은 여러 분야에서 이미 폭넓게 다뤄진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한 것은 약하고 다시 상기 시키는 정도에서 문제를 다뤄보기로 한다.

1) 교단 분위기에서 오는 어려움(문제)

가) 전무출신으로 결혼했다는 그 자체가 어려움이다.

인간의 의식은 새로운 것을 받아 들인다고 해서 과거의 것을 모두 지워 버릴 수는 없다. 누적된 과거의 바탕위에 받아 들여진 새로운 사상은 과거의 생각과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하게 되고 그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의식이 행동의 바탕이 된다.

대종사께서 깨치신 안목에서 전무출신에게 결혼의 자유를 부여하셨지만 오랫동안 굳어져 내려 온 관습과 사회적 통념은 성직자는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이 변화되기란 쉽지 않다.

그 동안 우리 교단에서도 출가자가 결혼했다는 자체가 미안한 일이었으며 가정(사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가능하면 음성적으로 개인의 차원에서 처리해 왔던게 전통적 관례였다.

나) 정남·정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집단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부류들이 모여 상생 상화의 조화속에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발전해 간다.

집단내에서 자기의 특성만 고집하고 자기 들만의 우수성을 내세운다면 그 집단은 다양함을 소화해 내지 못하고 언제가는 객관성의 결여로 분파로 갈리거나 도태 될 수밖에 없다.

정남·정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현재에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생활지원금, 인사문제, 사가생활, 집단 이기주의 등등) 현재 보다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서로가 대종사의 교법데로 살아간다면 부분적인 갈등은 있었지만 근원적인 어려움은 없겠지만 혹 제도 운영의 미숙으로 이 문제가 크게 대두 된다면 교단의 심각한 문제로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2) 제도상에서 오는 어려움

가) 인사제도, 용금제도

결혼을 함으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사제도에서 오는 문제와 용금제도에서 오는 문제이다.

결혼한 전무출신과 그 가족에게 있어서 인사문제는 정신적으로 불안갖게 하는 요소이며, 용금 문제는 경제적 불안감을 갖게 한다.

본교의 명령에는 수화라도 불피하고 복종하기로 서원하며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각자 맡은바 직장에서 그일 그일에 힘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전무출신의 자세요, 정신이다.

그러나 전무출신이 결혼을 하게되면 어느곳이나 가리지 않고 봉사 해야 된다는 생각과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자연 결혼을 하게되면 교역자의 선호도가 인사 인동이 적고 월급 체제가 안정된 곳으로 향하게 된다.

이를 표 2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다.

〈표-2 원기 80년도 근무지별 전무출신 현황〉

구분	총부	교화	교육	훈련	문화	자선	산업	기타기관	기타	합계
남	78 (5.9)	160 (12)	109 (8.2)	23 (1.7)	19 (1.4)	62 (4.7)	16 (1.2)	2 (0.2)	8 (0.6)	477 (35.7)
여	41 (3.1)	633 (47.6)	42 (3.2)	27 (2.0)	7 (0.5)	80 (6.0)	12 (0.9)	1 (0.1)	8 (0.6)	851 (64.1)
계	119 (9.0)	793 (60)	151 (11.4)	50 (3.7)	26 (2.0)	142 (10.7)	28 (2.1)	3 (0.3)	16 (1.2)	1,328 (100)

*()안은 전체비 %임. *도무, 덕무 포함 *자료제공 : 기획실

인사제도와 용금제도에 오는 문제는 결혼한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단 운영과 교역자 사이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① 전무출신 상호간의 위화감으로 인한 동질성 분열 ② 전무출신 정신의 퇴색으로 인한 세속화 ③ 교회 인력 감소로 인한 교회 침체 ④ 정체성 상실(소외)로 인한 교단에 대한 불감자 증가 ⑤ 성취감 결여로 인한 전무출신 감소 등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런 문제는 결혼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결혼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표-3은 지난 20여년간의 전무출신 급여 현황이다.

〈표-3 전무출신 급여 현황〉

연도 \ 구분		64	65	66	67	68	69	70	71	72
용 금	급여액	27,000	32,000	42,000	65,000	78,000	78,000	85,000	85,000	80,000
	인상을		15%	30%	50%	18%	동결	17%	동결	-6%
백미1가마	가격	33,000	45,000	60,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73	74	75	76	77	78	79	80	81
용 금	급여액	80,000	100,000	150,000	150,000	150,000	200,000	200,000	200,000	250,000
	인상을	동결	25%	50%	동결	동결	33%	동결	동결	25%
백미1가마	가격	73,000	83,000	100,000	100,000	110,000	110,000	110,000	120,000	130,000

※ 원기 55년(1970): 용금 4,000원 쌀 1가마 5,000원

※ 원기 75년도 정근 수당 200%

※ 원기 76년도부터 정근 수당 400%

※ 원기 74년도부터 매달평균 120,000정도의 생활 복지금 지급

전무출신 급여 체제를 일반 사회의 임금 체제에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나 여기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첫째 : 원기 55(1970)년부터 원기 80(1995)년까지 25년간 전무출신 용금은 4,000원에서 20만원으로 50배가 인상되었으나 쌀값은 24배(5천원에서 12만원으로)가 인상되었다.

상대적으로 전무출신의 용금 인상을이 높은 것은 쌀값은 국가 정책적으로 인상을 조정했기 때문이지 전무출신의 용금의 인상을이 실지 물가상승율보다 높았던 것은 아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같은 기간 제조업 종사자 평균 임금 인상을이 79배였다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둘째 : 임금 인상을만 볼때에는 전무출신이나 일반사회 근로자나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은 전무출신 용금의 기본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실지 수령액으로 보면 해가 갈수록 그 격차는 커지고 있다.

95년도 재정경제원에서 발표한 도시 근로자 가구당 한달 평균 수입이 191만원이고 지출은 141만원으로 50만을남기는 혼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획실에서 조사한 (원기8년) 정토회원 의식 조사 분석 자료에 보면 결혼한 전무출신의 평균 수입을 보면 약 10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60만원이하도 15.1%나 되는 걸로 조사되었다.

한달 가구당 평균 생활비도 약 100만원 정도로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가정을 꾸려나가는 데는 일정액의 돈이 수입과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다.

셋째는 용금에만 의존하고 생활하는 후진들은 초창기 선진님들의 어려움을 그대로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산업 정보 사회로 변한 것을 감안한다면 어쩌면 지금의 생활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3) 사회 구조 변화에서 오는 어려움

인사, 용금제도에서 오는 어려움이 전무출신의 가정에 있어서 내적 어려움의 조건이라면, 사회 구조 변화에서 오는 어려움은 외적으로 와지는 어려움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정토회원에게 부모봉양, 자녀교육, 가정경제등 가정사 모든 일을 책임지게 하는 전무출신 가정으로서는 사회 구조 변화에 민감 할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는 사회의 여러 제도 뿐만아니라 가정에도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

전통적 가부장 사회가 기초가 되어온 가정은 서구 사회의 핵가족화, 개인주의 사상을 무비관적으로 받아들여 가정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구조 행동면에 여러 가지 부조리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가정적 역할이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여성이 역할이 부각되어 가정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바뀌었으며 가족제도도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대가족에서 소각족으로 변화했다.

가정 기능의 축소 또는 포기 현상, 그리고 가족제도의 변화는 문제 가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산업사회의 역기능적인 여러 현상은 이혼율 증가, 혼외출생의 증가, 부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개인주의, 미혼모 증가, 동거 생활로 인한 전통적 결혼관 파괴, 부재(不在)가정 등 전통적인 가정의 붕괴를 촉진하고 있다.

사회 가치 변화로 인한 가정의 붕괴는 정토회원의 책임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①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어려움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에서도 여성의 노동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남녀 고용 평등법'이 시행된지 8년이 지났지만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데 남녀 기회 평등은 요원하기만하다.

유엔개발 계획(UNDP)의 95년도 <인간 개발 보고서>에는 한국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세계 1백27개국 가운데 59위, 관리직 참가율은 1백 16개국 중 1백 12위로 되어 있다.

여성 개발원에 따르면 94년말 현재 취업 여성중 전문직 근로자의 비율은 5%, 기업 임원, 국장급 공무원 등 이른바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3.5%였다.

이처럼 여성의 직업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많이 처지는 것은 채용차별 같은 기업의 성분리 인력 정책탓에 시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방해를 받으며 어렵게 취

업한 여성도 출산, 육아라는 가족 형성기에서 반 강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탓도 크다.

자녀가 크고 나서는 변변한 직장에 재 취업이 극히 어려우므로 여성은 '잠시 쓰고 버리는 광범위한 주변 노동력군'으로 추락하기 일쑤이다.

장황하게 늘어 놓은 것은 아직도 여성의 취업의 문이 좁다는 것이며 또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퇴직을 강요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토회원은 사회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른 맞벌이 부부와는 직장 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것이다.

일반직장 맞벌이 여성들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 둘 수도 있지만 정토회원들은 그럴 수도 없는 현실이다. 정토회원에게서의 직장은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생존의 문제까지 겹쳐 직장 생활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밝힌 '맞벌이를 하는 이유' 중 여성에 있어 경제적 이유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34%라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조사된 자료는 없지만 정토회원이 직장을 갖는 이유를 묻는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를 내세울 것이다.

②자녀 교육 문제

우리나라 주부 75%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고 있으며 평균 과외비는 13만 1천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5세가 10만 5천원, 초등학교 9만 5천원, 중 1학년 14만 1천원, 고 1년이 18만 5천원 등이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과외를 하지 않고서는 교육 과정을 적응해 나가기 어려우며 특히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 1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전무출신 자녀라고 과외를 안 시킬 수는 없는 실정이다.

물론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과연 자녀의 인격 형성이 옮바로 정립될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어머니가 직장에 나간사이 자녀관리 문제등 전무출신 가정 내에서의 자녀 교육 문제는 심각한 문

제이다.

특히 날로 흉악해지는 사회 문제 속에서 여자 혼자서 가정과 자녀를 지켜 나간다는 것은 슈퍼 우먼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4) 세속화에서 오는 문제점

원인은 많이 있겠지만 이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 요인이 더 크다고 할수 있다. 이 문제가 부각되면 전무출신 뿐리까지도 혼들릴 수 있다.

제도에서 오는 요인은 전무출신 정신과 본분의 상향 설정으로 그에 대한 일탈 행위로 세속화의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

교단이 요구하는 전무출신의 모습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수준에 개인 능력이 따르지 못할때에는 좌절감을 갖게 한다.

좌절감이 심할 경우에는 가치관을 분열시키고 행동의 방향을 둔하게 한다.

이러다 보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행동이 위축되어 수동적으로 되어 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쉽다.

자칫 교단이 허용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세속화 일수도 있다.

또한 요즘 세대의 전체적인 의식 분위기가 개인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을 위해 참고 희생 봉사하는 삶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의식은 전무출신을 서원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가치관도 희생 봉공하는 삶보다는 자아실현 쪽으로 가고 있다.

6. 극복 방법

전무출신이 가정을 가짐으로서 오는 어려움과 문제점은 가정을 갖은 전무출신 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교단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안도 아니다. 1차적으로는 결혼한 출가교역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교단에서는 제도를 통해 이를 도와 주어야 한다.

1) 분위기에서 오는 어려움 극복 방안

분위기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단 구성원 전체 의식이 공·사가(公·私家)가 하나라는 의식전환이 선행 되어야 만이 극복이 가능하리라 본다.

교단에 남자 교역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표-5참조〉 추세에 있다.

교단 제도나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남자 전무출신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표-5 남녀별 전무출신 현황〉

구분 \ 년도	75	76	77	78	79	80
남	370(33.3)	397(34.0)	413(35.0)	434(35.7)	452(36)	477(35.9)
여	743(66.8)	770(66.0)	768(65.0)	780(64.3)	804(64)	851(64.1)
계	1,113(100)	1,167(100)	1,181(100)	1,214(100)	1,256(100)	1,328(100)

이런 추세라면 원기 100년도에는 남자 출가 교역자의 수가 여자 출가 교역자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남자 전무출신의 수는 477명이며 이중 약 90%정도가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있다. 1가구 평균 가족 수를 4명으로 계산하면 약 1,600여명의 가족이 원불교와 깊이 관계하면서 살고 있다.

교단에서도 이제는 이들을 공적으로 관리를 해야한다.

과거와 같이 사가의 문제를 결혼한 당사자의 문제나 책임만 지우기에는 사회구조가 너무나 다양해졌으며 상대적으로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정이 건강해야 만이 교단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

전무출신 정신으로 오롯이 살아 갈수 있도록 교단에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정남 정녀와의 관계에서 와지는 어려움도 서로가 하나임을 깨우칠 때 쉽게 극복 되리라 본다.

첫째 :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한다.

다양한 교역자 제도의 문을 열어 주신 대종사의 본의를 생각하고 자기의 영역만을 주장하는 상대적 개념을 버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존재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 : 때에 따라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서로가 추구하는 정신은 같아도 생활 구조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그 희생은 상대방에 있어서는 은혜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셋째 : 없어서는 안될 관계임을 깨쳐야 한다.

광개 무량한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서로는 수레의 두바퀴 같이 없어서는 안될 관계임을 깨쳐야 한다.

2) 제도에서 오는 어려움의 극복 방안

전무출신의 생활 형태는 원칙적으로 공동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늘어나는 남자 교무들이 다 수용하기에 부족했던 총부의 주거 시설과 남자 교무들의 가족과의 동거에 대한 요구가 높아 지면서 차츰 남자 교무들은 사가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남자 교무들의 가족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해 주지 못한 교단은 사가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말릴만한 명분이 없으므로 묵인하에 남자 교무들은 서서히 사가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결혼을 하면 사가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걸로 되어 있다.

결혼한 전무출신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가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무출신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공동 생활을 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공동 생활을 함으로써 역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 순기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제도이다.

순기능

전무출신, 정토희원, 원친회원 동질성 회복

정토희원 책임 상당 부분 해결

공부풍토 조성으로 전무출신 세속화 극복

자녀 교육 가정방법 공동관리

전무출신 서원 분위기 조성

원불교 교화에 일익

가족적인 분위기 회복

위화감 주복

원불교의 용금정신은 대종사께서 바라는 전무출신 정신이요, 사회가 요구하는 수도자의 정신이다.

물질위주 가치관이 편만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크게 평가되고 있지만 수도인의 사고가 일반인들과 같다며는 본질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전무출신의 용금의 수준은 현 수준에서 약간 상향되는 것은 바람직 하겠으나 정부 기관이나 일반 회사의 수준에서의 월급체계를 세워나가는 것은 대종사의 본의가 아니면 전무출신으로서 취할 자세도 아니다.

이는 전무출신 규정에 보면 “전무출신의 임무의 취지는 급료 여부에 있지않고 오직 사명감으로서 이행하는 것”이 전무출신의 자세라 했다.

그러나 가정 경제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오롯하게 세상과 교단을 위해 공헌 할 수 없다.

전무출신 가정 경제에 대한 교단의 역할은 용금으로 보장 해 주는 것이 형태가 아니라 전무출신 가족에 대해 후생 복지로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무출신 정신과 자세에도 부합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대종사께서 “전무출신이 사가(私家)에 끌리지 않고 공사에만 전력하기 위하여 교단에서는 사가 생활을 보살피는 제도와 기관을 설립하여 전무출신의 본분사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 교중 형편이 아직 그러지 못할때에는 기관을 적게 벌려 서라도 사가일에 정신을 빼기지 않게 하라” 하신 말씀의 본의는 사가 일로 인해 전무출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경계하신 말씀이며, 교단적으로는 전무출신

이 오롯이 공중사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 주라는 말씀이지 급료를 보장 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다.

3) 세속화에서 오는 문제 극복 방안

- ①제도적으로는 관리를 해주고
- ②개인적으로는 관(교단, 회상, 스승, 진리)을 세워야 한다.
- ③전무출신 임을 항상 잊지 않고 교법의 생활화에 앞장선다.
- ④형식주의 극복

7. 결혼한 전무출신의 역할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무출신의 정신과 본분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결혼한 전무출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혼을 함으로서 교단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또 오롯이 공사에 전념하지 못한 참회의 의미에서라도 결혼함으로서 생기는 환경에서 보은의 차원으로 교단에 역할을 해야한다.

1) 기혼전무출신 상의 정립.

2) 교법을 가정화, 이웃화, 시켜나가야 한다.

3)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4) 정토회원의 삶의 질을 높여 줘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뜻이다.

생활의 질이란 물질적 측면에서의 생활의 향상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차원을 높여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구성원이 만족스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행복에도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신적인 행복이고 또 하나는 물리적인 행복이다.

정신적인 행복은 느낌에서 오는 것이고 물리적인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다. 느낌에서 오는 행복은 소유나 환경 여건에 관계없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상대적인 것으로 남보다 많이 소유함으로서 느끼는 만족이다.

정토회원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혼한 전무출신의 삶의 모습이다.

5) 자녀들이 전무출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원친회원은 전생부터 대종사님과 많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대산 상사께서는 “자녀는 진리가 부모에게 잠시 위탁 시켰다고 하셨다.

부모는 이러한 자녀를 보은의 일꾼으로 키워낼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셨다”

교단은 교역자 지원자 감소로 고심을 하고 대처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자 감소의 원인은 청소년 교화의 침체, 가족계획으로 인한 인구 감소, 전무출신 후생대책 미흡, 사회 구조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역자 지원의 감소 현상은 우리 교단뿐아니라 천주교, 불교 등 타종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타 종단과는 달리 원친회원이라는 전무출신을 서원할 가능성이 어느 집단보다 많은 보고(寶庫)가 있다.

원친회원은 전무출신을 서원할 수 있는 인(因)은 갖고 원래 갖고 태어 났다.

연(緣:부모역할)이 잘 만나면 자연 과(果:전무출신)는 나타날 것이다.

전무출신의 가정에서 전무출신을 많이 배출해 내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도 기대하기는 힘들다.

조건은 제도를 통해 변화 시킬수 있는 문제이다.

그동안 원친회원의 전무출신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원기 1년부터 81년까지 총 전무출신 배출자수가 2,000명이다. 그 중 원친회원은 127명으로 전체 대비 6.3%이며 최근 10년간 원친회원의 전무출신 지원자 현황(표-6)과 원친회원 대학 진학자중 전무출신지원자의 현황(표-7)은 다음과 같다.

〈표-6 전무출신 지원자 및 원친회원 지원자 현황〉 (최근 10년간)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계
총지원자	74	76	69	55	53	61	67	56	56	84	686
원친회원	3	3	3	1	3	2	3	2	2	3	25
백분율(%)	4	3.9	4.3	1.8	5.7	3.3	4.5	3.6	3.6	3.6	3.6%

〈표-7 원친회원 대학 진학자 및 전무출신 지원자 비율〉 (최근 10년간)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계
진학자	22	17	19	14	11	10	13	13	9	20	148
지원자	3	3	3	1	3	2	3	3	2	3	25
백분율(%)	13.6	17.6	15.8	7.1	27.3	20	23.1	15.4	22.2	15	16.9

정토회원 의식조사(원기 80년 기획실조사)에 의하면 자녀가 교무가 되고 싶다면 찬성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찬성한다가 63%로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12.5%로 나타 났으며, 반반이다 하는 입장이 21.7%로, 반반이다는 입장을 찬성으로 반수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자녀의 전무출신에 대해 75%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대학입학 가능한 자녀 있을 연령)에서 강한 찬성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표-7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평균 16.9%정도만이 전무출신을 서원하고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무출신의 가정에서 많은 전무출신이 나올 수 있도록 부모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8. 결어

대종사께서는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교역자 자격을 부여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역자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

평생을 순결한 정남·정녀로서 교역자 길을 갈 수 있는 문로도 열어 주셨고 가정을 갖고 교역의 길을 수행할 수도 있게 하셨다.

결혼이 전무출신 정신이나 역할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결혼한 전무출신의 상

의 정립이 필요하고 가정 생활에 필요한 윤리의 제시가 요청되는 이유는 특정 집단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벗어나려하는 정신을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 놓기 위함이다.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생기게 되며 이 환경속에서 전무출신의 본연의 모습을 잊지 않고 어떻게 보면 대종사의 교법을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필요한 윤리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윤리 제시(생활윤리, 경제윤리, 혼인윤리, 생명윤리 등등)에 앞서 우선 결혼한 전무출신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에 바탕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의 과제로 두고 계속 연구하기로 한다.